

청년구직자의 Mismatch 해소를 위한 대학에서의 진로·취업교육 심포지엄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4월 7일(화) 오후 1시부터 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 6층 무궁화장홀에서 전국 100여개 대학의 취업담당자 및 기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배출과 취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손병두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장의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박찬수 건양대학교 취업매직센터장,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취업교육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의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번 행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청년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측면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뜻 깊은 자리였다.

전환기 휴먼뉴딜 인재육성과 상생지향적 지역발전 세미나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4월 15일(수) 오후 13시 30분부터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천안시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에서 충남도청, 한국교육개발원, 지역대학(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백석대, 충남대, 한남대, 한서대, 신성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충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휴먼뉴딜 관련 인재육성과 상생지향적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본부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토론, 그리고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휴먼뉴딜 정책과 지역발전, 그리고 상생협력과 사회통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자리로 장기화 되어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휴먼뉴딜 기반 인재육성으로 상생협력적 지역발전의 전략을 모색하고, 조직 내 갈등예방 및 기업과 취업자의 win-win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자리가 되었다.